

## 성경적 양성 평등에 관한 연구

김 학 영

칼빈 대학 기독교가정사역 강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고유한 성(Gender)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셨고 본능이 가리키는 성 이상의 초월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성 역할에 대한 불완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하여 바로 알기위해서 성경에서 그 근본 해결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가장 극치와 절정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며 먼저 남자를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며 그리고 이 둘을 결혼하게 하시어 가정을 만드신 일이다.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주신다음에 비로서 사람은 생령 즉 살아서 활기 있는 생명, 스스로 사고하고 책임지고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며, 단순히 기능적인 면으로만 만드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속에 내제되어 있는 사랑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존재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지어진 존재인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는 은혜아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다.

.고전11:8-12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이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위에 둘 찌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성과 여성이 참된 인간의 자아가 자신을 주관적으로 알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성(Gender)역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또한 남성이나 여성이나 진정한 자기의 성의 역할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그 때부터 자기 자신의 건전한 자아상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건강한 자아상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각각의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사랑이 존재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이었던 가정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건강한 가정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께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가정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알 아야 한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대상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쓰러지면 하나님나라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이 깨어지는 직접적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성격차이,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배우자의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고집하는 남편들과 평등한 관계를 소원하는 아내들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권위의 축이 일방적인 권위에서 상호적인 권위로 바뀐 것이다.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한다는 가치관을 고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며 점점 더 사회구조와 제도, 법이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의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

하고 있다.

여성의 의식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 쪽에서 시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남성은 아내가 순종적이고,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다고 불평하며 아내 쪽에서는 남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는 등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상호 기대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유진식, 2006)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이 있을 뿐 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 역할 규정에 집착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가부장적 역할을 고집하는 가운데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내는 노동과 자녀양육, 가사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탈진할 수 있다. 수직적 역할 규정에서 수평적이고 유연한 역할 재구성이 요청된다.

둘째는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다.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문제관계 자체를 포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만족할 선택이 되지 못한다.

셋째는 기존의 관계 속에 창조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깊은 차원에서 반응하는 것, 신체적정서적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 자녀양육과 가사에 협력하는 것 등이다. 즉 가족간의 위계설정을 최소화하고 부부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서로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가지중 많은 사람이 두 번째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너무 높은 이혼율과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늦게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고도 아기를 낳지 않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과 의도하심과는 너무도 왜곡되어지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시대는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결혼을 요구하고 있다.

- ①중요한 가정사는 의논을 통해서 결정
- ②부부간 문제는 대화로 해결
- ③재산은 부부공유가 원칙이고 재산형성은 공동노력으로 함
- ④자녀양육은 공동책임
- ⑤서로의 인격을 존중
- ⑥각자의 취미활동 및 사회생활 존중
- ⑦처가와 시댁을 똑같이 대우하고 가사는 서로 분담
- ⑧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 ⑨배우자의 능력 계발에 적극 조력
- ⑩휴식은 함께
- ⑪잘못을 솔직히 인정
- ⑫맞지 않는 성격은 맞추려고 노력
- ⑬금전 지출은 상의한 뒤 결정
- ⑭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유지
- ⑮서로를 기쁘게 하는 성생활 등이다.

한국 교회는 현대 가정의 위기를 성경적인 사람의 창조와 남녀의 역할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생애교육을 교회와 NGO, 정부가 함께 연대해서 펼쳐야 한다. (정동섭 2004)

위의 교육내용들이 성경적 양성교육의 본질일까? 교회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 교육해야 만 한다. 앞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남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둘을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결혼하기 전의 남, 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이 둘을 결혼시키셨다. 그러기 때문에 결혼 전의 각각의 남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남녀 각각의 역할과 할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관점으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사람이 살아야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 남녀들과 하신 언약이다.

결국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특정한 규정이나 제도가 아니라 남녀의 역할과 관계의 질이다. 가족의 형태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간의 관계의 성격이다. 관계에 있어 진정한 친밀감은 대등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소원과 바람을 존중해주는 기술이 없다면 친밀한 남녀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혼란에 빠져있다. 이 혼란 속에서 남녀의 평등을 알기 보다는 자기비하와 지기도취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으며, 어떻게 살기를 원 하셨는가?
2. 남녀를 어떻게 만드셨으며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3.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타락의 왜곡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4.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으로 돌아 올 수 있는가?
5. 다시 회복된 상태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 해 지는가?

를 성경적 관점에서 사람, 남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바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내용으로 전개해 가고자 한다.

## 본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하는 문제에서 제일 큰 싸움은 여성의 지위 문제이다. 이 싸움은 인권운동의 싸움이아니라 성경에 대한 싸움이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지 남자는 여자는 각각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 하셨다.

- 1)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창2:5-6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 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 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 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1:26 전반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직 땅을 경작 할 사람이 없어 들은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땅을 경작 할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용한 재료는 흙이며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동물 들은 각기 종류대로(창1:21,24,25) 창조함을 받았지만 유독히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구절의 주 동사가 복수형 우리가 로 씌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이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사이의 교제 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이 전체를 이루는 삼중적인 실체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 한다 는 인간 구성의 특색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아더 핑크,2006)

- .살전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찢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구절들도 있는 반면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사람의 창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가 들어 있으며 이 사실은 사람 창조의 독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며 남녀 구별 없이 남녀를 함께 지칭하는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 즉 남자도 사람이요, 여자도 사람이며, 또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사람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 만드셨다.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르다, 베다 ‘라는 동사로부터 유래 된 단어로 즉 하나님의 모양대로 조각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 비슷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은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안토니A후크마,1995)

2)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 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인간 자신의 비천한 기원과 그 의존성을 가르쳐 준다.피조물로서 사람은 진흙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다. 우리가 올바른 자아상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겸허한 상태를 온전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흙으로 지음 받은 진흙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 할 때만이 우리 자신을 진실 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비천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에게 부여된 소생케 하는 원리, 이것은 직접 하나님 으로부터 왔다. 흙으로 빚은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숨씨이며 그의 영은 영들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전달된 것이며 아담에게는 생기가 흘렀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다르다. 이 숨을 넣어주시는 순간부터 인간은 생령이 되었다. 곧 숨을 쉬며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숨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루아흐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영, 혼,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뜻 이다.이 시점에서 아담은 완전한 인간 이었으며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한, 인간은 흙에 지나지 다. 죄와 죽음이 전혀 없을 때에도 인간은 단지 흙으로 된 존재인 것이다.(리차드L.프렛, 1996)

3) 아담의 창조사역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심

- .창1:27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창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 .창2:2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창2: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취하시고
- .창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창2: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로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시고는 지으신 것이 화와가 아니고 각종 짐승들 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다. 이

를 지어 준다는 것은 그 속성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모든 지으신 생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어 이르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다 지으며 다 꿰뚫어 봐도 그 중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지위가 있는데 다른 생물들 하고는 그 격이 맞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대신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다. 아담은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인 남자에게서 취한 그의 반려자의 이름을 여자라고 이름 지었다.

성경은 여자와 남자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 여권 신장이라는 말을 쓰기 보다는 그 여자가 곧 나 더라 이다. 이름 으며 꿰 뚫어 본 것들은 나와는 격이 다른 구별되는 하층의 생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여자는 나와 똑같은 자인 것이다. 나와 동등하게 지으신 것이다.(박영선 1993)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측면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남자와 여자는 합쳐져야 하나이다. 언제나 둘은 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요4:24)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신체적 차이를 가리킨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세분은 속성에서, 능력에서, 영광에서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영원 하시며, 공홀이 넘치시며, 인자하시며, 각각 완전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를 좀 더 검토해보면 이 용어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가리킨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으로 규명하고 다른 모든 종의 동물들을 능가하는 인간 본성의 탁월성을 포함하며 아담이 소유한 무흠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적인 정직함, 하나님의 본성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본성으로 간주한다.

.전7: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 것이라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부적절한 성향이 없을 뿐 아니라 규칙대로 즉 하나님의 법에 맞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시25:8 여호와께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 하시 리로다.

거룩한 존재가 피조물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다면 그 피조물에게 거룩을 부여할 것이다.(아더핑크,2006)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만 지으려 했는데 그가 외로울 것 같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순전히 인본주의적 관점이다. 또 그에게 돕는 배필을 준 것은 즐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인본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담이 독처하였으나 하나님이 후에 여자를 만들어 준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던 경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 하기 전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이는 아담이 범죄 하기 전의 일이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시지 않으시고 그 전에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은 에제르, 크네그도 인데 에제르는 돕는자, 구원자라는 뜻이고, 크네그도는 그와 동등 또는 그에게 적절한 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그와 동등한 구원자, 그에게 적절한 돕는자라 할수있다. 이렇게 남자의 짝인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구원자요 돕는 자다. 이때 그와 동등하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동등하지 않았다

.딤후2: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이후며

.고전11:8-9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고전11:11-12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단의 꾀임이 직접 아담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사단적인 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다. 아담이 범죄 한 후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으므로 여자는 계속해서 아담의 돕는배필

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담의 범죄 전에 이미 작정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담이 범죄 함으로 최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과 교제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여성만이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여자를 흙으로 빚으시는 대신에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그 목적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발하게 될 연합을 표현하기 위한 것, 서로의 상호 관계와 의존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 남자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만듦으로써 육신적으로 볼 때 모든 인류가 그 두 사람 안에 담겨져 있었으며 그 둘로부터 생산되어 모든 인류를 한 핏줄이 되도록 하셨다.(헬렌보그.1999)

.행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하셨으니

아담아란 단어는 종종 인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창6:5 주께서 인류의(사람의) 사악함이 온 땅에 관영함을 보시고

## 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심

.창1:28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창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 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탁하신 것은 사람은 인격을 소유한 존재이며 동시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시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사람도 이를 닮은 인격체이다. 이는 부모에게 말하는 것으로 축복의 말씀이며, 동시에 명령이며 사명의 위임이라 할 수 있다. 피조물에게 생명 보존을 위한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인간 생명의 번성을 위하여 창조된 다른 생명체처럼 인간 아담에게도 여자를 만들어 주신다. 여자의 창조를 우리는 단지 심리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인간 아담이 고독하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 상대자나 놀이 파트너 혹은 파트너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도 다른 생명체를 축복하신 것

곧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인간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유사점이 있는데 온 땅과 동물을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 누군가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체는 스스로 자멸할 위험이 있다. 즉 생물학적으로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 수효 즉 생명체의 양(量)이 조절되지 않으면, 생명체는 스스로 자멸해 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다른 피조물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곧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보호하고 양육시켜야 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체의 생명여건으로서 빛, 물, 땅을 조성하여 놓으시고, 그 다음 인간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생물체를 창조하신 다음,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켜갈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다.

.창 1:29-30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르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체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계시해 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하신 것처럼, 인간도 자연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유지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위임된 사항이다.

### 3. 둘을 결혼하게 하시어 남자를 남편으로, 여자를 아내로 만드시고

.창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창2:25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아담으로 존재할 때에는 갈빗대가 정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빗대를 하나 꺼내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는 뜻하는 바가 많다고 있다. 아담, 사람으로 존재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남편으로 태어나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내어주게 된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갈빗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줄 때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여자, 곧 아내이다. 남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나와 똑같은 자 나와 동등한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나와 가장 친밀한자, 둘이 하나 일 때 만 가능한 말이다. 남자가 이분의 일이고 여자가 이분의 일이라는 말 이 아니다. 남자도 하나의 사람, 여자도 하나의 사람이다. 언제나 둘은 하나이다. 마치 성자 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이 일체로 계신 것 같이,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이다. 사람은 원래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분리되어 태어났고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는 신비한 결혼제도를 하나님의 의도이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 맞는 짝을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가, 아담(남자) 혼자서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여자가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아담에게 여자들 만들어 주신 것이다. 창조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즉 . 이러한 의미에서 여자의 창조는 결코 남자의 창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아담)에게 부여하신 위임사항을 남-여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 남-여는 함께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 여기에 상-하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단지 서로의 역할 분담이 있을 뿐이다.

여자는 생육과 번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남자는 그를 돌보고 사랑하며, 만물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남자와 여자를 통 생명체를 유지 보전해 가시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김 재진 2003)

이상의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사람이 귀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에서만 그 가치가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된다면 사람은 지 흠 일 뿐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는 자율성,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선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 권은 또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윤남옥,2006)

#### A.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a. 인격적 닮음을 의미한다.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드셨다. 하나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다.

##### b. 영적 닮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 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

사람은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땅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졌다.

c. 도덕적 답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닮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면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살 때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러므로 도덕성이란 도덕적 원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 힘,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d. 사회적 답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삼일일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산다. 함께 살아가는 능력, 삶의 태도를 배우고 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고 합하여 하나 되어 살도록 하셨다.

e. 예술성, 창의성을 닮았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다.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 할 수 있는 예술성, 또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창의성,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러한 예술성은 온 우주 만물들을 각각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다양성의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다.

f. 정치성의 답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셨다. 이를 통해 질서를 이루며 세상을 끌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도 다스리는 정치성, 물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슬기롭게 기쁨을 다스리는 이러한 특별한 능력들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B.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사명

a.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서 아이를 갖도록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육체적 번성이 사람의 귀중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번식해야 했다. 자신을 대표하여 왕으로 스틸 사람들로 이 세상을 충만히 채우라고 명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사람의 손에 위임하셨다.

b.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람의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다. 통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다. 사람의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요, 특별한 임무이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사이다. 사람은 이땅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 받은 피조물이다.

4. 사람의 타락으로 사립의 단절이 일으며 생기는 왜곡된 현상들

.창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제 7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교제 의 날로 만들어 주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축복을 가졌으며 에덴동산의 축복은 이렇게 주님과 수시로 교제하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에덴동산의 축복은 충만한 교제에 있었다. 에덴동산은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최초의 가정이었고 최초의 성전이였다. 그 행복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에덴동산을 쫓겨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 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전적으로 신뢰받고 경배 받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 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귀의 분리나 단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내부에서 선악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죄를 범하게 되니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에 숨어버린다. 자신이 더 이상 아름다운 피조물이 아닌 수치와 죄악으로 더럽혀진 몸인 것을 보게 눈이 밝아져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어 보게 되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이다. 죄는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사귀를 단절시켜 버렸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명령에 불순종하면 정녕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계의 죽음,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비단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던 부부사이도 갈라놓게 되었다. 믿음직한 남편 아담은 죄의 책임소재를 아내에게 전가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사이가 되게 되어 버렸다. 더 나아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이 일생 수고하고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쫓겨났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며 생명과의 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의미한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시작되게 되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들은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가 없었고 에덴동산 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던 이들은 죄의 열매를 먹고살게 되었다. 모든 풍요와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렸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살인을 하면서 또 깊은 관계의 단절의 아픔을 체험하게 되며 첫 아들 카인은 정말 쉼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취하여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방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저주 자체이며 하나님과의 사귀의 단절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를 포함하여 사용한다.

family와 house라는 단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특 가정 이라는 말의 어원은 별거벗다, 세우다 라는 말을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가정이라는 말의 의미

연합과 함께 라는 의미를 제외하면 뜻을 전달하거나 가정이라는 말의 사용목적은 이룰 수 없다. 가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족의 연합이 손상되고 쉽게 깨진다.

그 영향력의 첫 번째, 대상은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곧 흩어지고 상처가 남는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쉽고 급격하게 붕괴가 시작되지만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의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아닌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허철, 2005)

## 5. 범죄의 책임론

창세기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서 말씀하는 저주라는 말의 히브리어말의 의미는 미워하다, 증오하다, 포기하다 라고 한다.

여기서 저주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즉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 함으로 그 다스림의 대상 이었던 땅이 저주를 받아 통치자의 타락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땅의 모든 열매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범죄의 형벌로써 땅을 저주 하셨 단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시지 않았다. 아니 인간을 저주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인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주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해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더 이상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세상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통치한다면 땅과 세상은 더욱 악하게 타락할 것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인간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는 않지만 직접 그 책임을 우리 각 개인 혹은 공동체 민족과, 국가에게 직접 물으시고 계신다.

이것이 창3:17절을 전후로 분명해진 죄에 대한 책임론이다. 저주는 성취되었지만 한사람의 잘못이라도 그 죄로 인한 책임은 모두에게 함께 물으시겠다는 강력해진 죄에 대한 책임론이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다. 자유의지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자유의지에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더욱 세상을 통치하고 싶은 욕망에 빠졌다. 자유의지가 정상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욕심(죄)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와 통제 방법을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존중되지 않고 동식물처럼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단은 오히려 그런 인간을 들어 자신의 통치권을 더욱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된다. 결국 인간과 세상은 죄로 인한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 6. 창세기 3장에서 모세는 인간의 부패를 두 가지로 말 한다.(리차드1. 프렛지움, 엠마오p65)

첫째, 그는 우리의 도덕적 성품에 난 상처를 지적한다. 과실을 먹은 후 아담과 이브는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그들이 하나님과 누리던 평화는 깨어지고, 그들 스스로는 숨는다. 원래 아담과 이브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조화를 누리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더럽혀졌다.

성경은 죄가 인간의 모든 성품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르친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지만 만약 사람을 스스로 욕망대로 버려둔다면 우리의 모든 기능은 극도로 부패해 질 것이다. 사람의 생각하는 과정은 너무나 어두워져서

##### 1)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킨다.

- .고전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 함이니라
- .요1: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 하더라
- .롬8: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을 생각하노니
- .엡4: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 .딤후1: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고 오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 2)우리의 자유의지는 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 할 수 없게 되었다.

- .요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 마다 죄의 종이라
- .딤후3:2-3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 이었으나

##### 3)우리의 감정은 손상되고 방향 감각을 잃어서 세상의 악마적 쾌락을 사랑한다.

- .요5:42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 .회3:12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 할 것이요.
- .요일2:15-17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4)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으며

- .요3:18-19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 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 이니라

5)그 무엇으로도 우리 자신을 속량 할 수 없다.

- .요6:44 3:5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
- .롬7:18,23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네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의 죄는 인간성을 초토화 시켰다. 양성 평등의 의미는 모두 왜곡되어져 버렸다.

둘째, 모세는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부름을 마비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 영역인 번성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1) 여자에게

- .창3:16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이니라

출산과 결혼이 왜곡이 되어졌다. 조화가 깨져 버렸다. 적개심과 고통의 근원지로 변해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사명자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허무한 일들로 부패해졌다.

2)아담에게 이르시되

- .창3:17-19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직도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이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사명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타락 전의 땅은 풍성하게 소산을 내었으나 지금은 땅이 강하게 저항한다. 하나님의 저주아래서 아담은 생존을 위해 투쟁 하여야 한다. 한때는 완벽하고 영광스러웠던 그의 형상이 이젠 흙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하셨다.

3)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신 자를 아담은 여자로, 하와로 이름 지었다.

.2:20 여호와 하나님....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칭하리라 하니라

.2:23 아담이 가로되.....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 하리라

.창3:20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하와라 이름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 이더라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아담은 여자라고 이름 지어 주었고 타락 후 아담은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

4) 타락 후 사람, 남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윤남옥,2006)

- ① 이와 같이 타락한 자아들은 세상의 가치에 중독이 되어 버렸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대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 인간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한다,
- ② 자신의 것은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복과 안녕 만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타락한 자아에게서 희생을 기대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며 타락한 자아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만일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만 그것이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한다.
- ③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진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에 모순적인 인격이 되어 버렸다. 자신에 대한 이해의 실패는 곧 자신을 객관화하여 보지 못하는데 있으며 진실하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워 피하면서 자신을 은닉하게 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자신이 참된 인생을 살고 못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기를 두려워한다.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피해버리고 무시하면서 가식적인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왜곡된 자아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④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된다. 부패한 자아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는데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일의 목적은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있다.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역이 의 사역이며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을 섬기고 있으며 그러한 일을 통해 개인의 성취감에 도취 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자랑하면서 영성의 성장은 철저하게 방해로 받고 있게 된다.
- ⑤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게 되었다. 부패한 자아, 타락한 자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분에게 붙들려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소유하여 언제나 필요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킨다. 므로 믿음의 관계가 아닌, 실리적인 관계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 ⑥ 은혜만 받고 나누거나 섬김,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패한 자아들은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면 좋아서 다 받아 드리지만 그러나 결코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 ⑦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타락한 자아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영으로 쓰여 진 것은 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욕을 갖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이해한다. 성경도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

⑧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즐기게 되었다. 타락한 자아는 욕신을 좇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모든 가치관과 관 자기중심적으로 내리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⑨ 그러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겉껍질과 교만한 자아는 보지 못한다. 타락한 자아는 남을 정죄하고 남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지 못하며 그러나 자신의 모습은 전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⑩ 타락한 자아들은 경건까지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딤후 6: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 결론

사람은 겉모양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에서 사람을 향해 속에 있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히브리어의 중심이란 말은 그의 마음, 사고방식, 속에서 목적하는 의도, 목표를 말한 것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 대화하시며 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동시에 의도하신 바가 있어 각 성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 하신다는 것이다.

완전한 여성은 하나님 안에서 성을 극복한 인격적 상태를 누리는 양성적 존재 이어야한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와가 아담의 몸으로부터 취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여성의 고유한 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인 형상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의 차이는 없다. 인격은 남성 여성을 띄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인격에는 단지 존재가 있는 것이지 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적절히 응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이 한사람은 남성인 경우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인 여성적인 자기 내면을 회복하여야 하며, 여성인 경우 자기 안에 남성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회복하여야한다. 이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인 것이다.

영적으로 인격의 완성은 먼저 그리스도의 남성적인 영성 앞에 여성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거듭나는 체험이 야하고 그 다음에 여성적인 자신의 영성이 점차 남성적인그리스도의 영성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영원한 남성다움을 지니신 그리스도 그 분의 권위에 여성적인 인간의 위치를 인정받고 예수님의 남성적인 모 의지하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동안에 자신 안에 남성다운 권위와 성격들이 강화되어 남성적 의지의 표현인 창 위, 죄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 무한한 사랑의 의지, 용서 등을 그리스도가 내안에 예수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시다. (이동원,2002)

사람의 범죄 후 자기 성만 고립시켜 주장함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죄 성을 가지고는 양성평등을 절대로

이를 수 없다. 성령에 의해 주께 반응하여 나온 자신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 올 때만 상대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 1.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 1)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격의 대상의 삶과 뜻을 발견하고 그 대상을 적극적으로 만난다.
- 2)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며 삶의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
- 3)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 4) 전적으로 그분이 내안에 계셔 나의 삶을 사시게 한다.
- 5) 그 분이 거하시느 성전으로 매일 매일 세워지며
- 6)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 분의 삶과 뜻을 재현 해 드리며
- 7) 주인의 즐거움과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

## 2. 완전하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 1)신랑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성품

고전11:1 :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

#### ①성품의 균형

주님의 성품은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놀랍도록 균형 잡혀 있었다. 주님의 성품의 탁월함은 그리스도인에서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불신자들에 의해서도 인식되었다. 주님의 성품은 조금의 흠도 없이 완벽했다. 그러나 그분의 겉모습만을 보는 자는 그분의 강인함과 위대함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 ②성품의 독특성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결코 변명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과해야 할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그분에게는 고백할 죄가 전혀 없었다.

#### ③성품들의 조화

예수께서는 동시에 나타나는 두 가지 본성을 한 인격 가운데 소유하셨다. 한 사람 안에서는 거의 공존하지 어떤 특성들이 그분에게서는 아무런 무리 없이 조화되었던 것이다.

인간적인 의존성과 신적인 독립성의 오묘한 조화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관찰된다.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다 자신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셨지만, 그분은 인간적인 교제와 온정에서 오는 위로를 필요로 하셨다.

그분은 참으로 자기 자신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셨다.

예수님은 매우 사랑스러우셨다. 도덕적, 영적 아름다움의 온갖 요소들이 그분 안에 있다.

## 2)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진 남녀, 사람은 똑 같이 평등하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 ①우리를 찾아오셔서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해결 해 주시는 사랑을 해 주신다.
- ②매일 매일 신랑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맺고 살게 된다.
- ③우리를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로 초대해 주신다.
- ④우리를 죽기까지 사랑 하신다.

신부인 사람 남녀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의 도움을 받아 의지하며

- ①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 ②주님을 위하여 즐거운 잔치를 베풀러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 ③주님 주심으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준비한다.
- ④신랑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산다.
- 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산제사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진 남녀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된 사람의 본성인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며, 정죄하며 스스로 의롭다하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으며, 자기 양심까지도 속이면서 왜곡 된 양성 평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 남녀 누구 든지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시는 완전하신 신랑예수님을 남녀 누구든지 평등하게 정결한 신부으로써 맞이하여 살 때 비로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 참고서적

- 가이거 루틸트, 신약성서 주변 세계에서의 이혼 여성의 위치, 1983.
- 다우젠베르크(편), 윤선아 역, 원시 그리스도교의 여성, 한국신학연구소 1992.
- 로버트 콜만 지음, 노병옥 옮김, 두란노서원, 1988.
- 리차드L. 프렛지음, 김정우 옮김, 엠마오, 1996.
- 메르클라인, 헬무트),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신학연구소, 1983
- 박문재 역, 바울신학,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박영선지음, 신자의 가정생활, 엠마오, 1993.
- 아더 핑크, 임원주 옮김, 인간의 전적 부패, 도서출판 누가. 2006.
- 안토니A, 후크마,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5
- 오영근 저, 아담과 이브의 배꼽, 아카데미서적, 2000.
- 유진식, 근대성, 버릴 것과 취할 것, 그리고 양성평등, 제2회 성 평등강좌, 2006.
- 윤남옥지음, 에덴의 축제, 도서출판, 진흥, 2006.
- 이동원 지음, 향유 내음 가득한 집, 생명의 말씀사, 2002.
- 이찬규, 중앙대학교 교수팀 ,가족에 대한 인식보고서, 여성가족부, 2006.10.
- 정동섭, 박사캐다다VIEW대학원 교수, 전 침신대 교수.
- 제롬 카르코피노, 고대로마의 일상생활, 류재화 역, 우물이 있는 집, 2003.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과정안내, 한국양성평등교육원, 2005,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5년도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양성교육 기본과정, 2005.
- 허 철,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축복, 순전한 나드, 2005.
- 헬렌 보그지음, 양은순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99.